

천국은 마치

[오늘의 비유]

마태복음 13:1-9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돌아보기

1.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본다면?
2. 지난 주 강의 때 기억에 남는 것은?
3.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읽고 느낀 점은?

마태복음의 비유 설교

- 마태복음의 예수님 설교 : 구약의 ‘모세오경’처럼 5개의 큰 주제로 묶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규범으로 제시 (㉠ 산/파/천/제/종)

5~7장	산상 설교	천국(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과 윤리에 대한 교훈
10장	제자 파송 설교	천국(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도전에 대한 교훈
13장	천국 비유 설교	천국(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성장에 대한 교훈
18장	제자 공동체 설교	천국(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 원리에 대한 교훈
24~25장	종말 설교	천국(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교훈

- 마태복음 13장 : 천국 비유 설교, 총 7개의 비유 (㉠씨/가/겨/누/보/진/그)
- 천국(하나님 나라)의 속성(신비와 성장)에 대한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마 13:1-9) 다양한 번역으로 읽기

- 개역개정 → 새번역 → 새한글 → 메시지 성경 → 영어 성경 등을 읽어 보기
- 복음서의 평행 본문도 비교하며 읽어보기(막 4:2-9, 눅 8:4-8)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나오는 등장 인물과 장치

- 씨를 뿌리는 자
- 네 가지 땅(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 새들, 싹, 해, 가시 등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문맥

- 마 11~12장 : 10장에 제자들의 파송으로 복음이 전파되지만, 11장에는 의심하고,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도사, 12장에는 예수님과 논쟁하고, 심지어 죽일까 의논하는 자들, 비난하고,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들이 나온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가?
- 마 13:57-58 : 예수를 배척, 믿지 않음

주후 1세기 중동 지역의 밭과 농사

- 1세기 이스라엘 청중들에게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현실적인 밭
-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한 밭에 섞여 있음
- 농부들이 씨를 광범위하게 흩뿌리면, 네 종류의 땅에 다양하게 떨어짐
- 씨앗이 흙으로 덮이도록 쟁기질 후, 양과 염소의 딱딱한 발굽으로 씨가 깊이 박히도록 밟게 함
- 이후 추수할 때까지 신비의 영역에 맡김 (막 4:26-29)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됨 (자연스러운 수확)

예수님의 설명(마 13:10-23)

- 천국(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비유
-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명이 없음, 땅을 어떻게 하라는 설명이 없음
- 좋은 땅에만 집중해서 뿌렸다는 설명이 없음
- 씨 : 천국(하나님 나라) 말씀
- 네 가지 땅 : 사람의 마음
- 길가 : 악한 자(새들)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감(결실하지 못함)
- 돌밭 :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해 환난, 박해로 넘어지는 자(결실하지 못함)
- 가시떨기 :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결실하지 못함)
- 좋은 땅 :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함 (1/4로 3/4을 능가하는 결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확장되어 갑니다.

[다음 강의] 마태복음 13:24-30 “가라지 비유”

[새번역 성경]

밀과 가라지의 비유

24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25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26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27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28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29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새한글 성경]

밀 가운데 뿌려진 독보리 비유

24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 놓은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25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밀 가운데 뿌려 놓고 가 버렸습니다.

26 썩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에 독보리들도 보였어요.

27 집주인의 종들이 집주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28 주인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원수 녀석이 이런 일을 해 놓았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것들을 뽑아서 모을까요?’

29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까지 뿌리째 뽑으면 안 된다.

30 수확 때까지 둘 다 같이 자라게 내버려둬라. 수확 때에 수확꾼들에게 말해서,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고 묶음으로 만들어 모조리 태워 버리라고 할 것이다. 밀은 내 광에 모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메시지 성경(허계영)]

24-26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왕국은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것과도 같소. 그런데 그날 밤, 일꾼들이 잠들었을 때, 농부의 원수가 와서 밭에 엉정귀 씨를 뿌려놓고 동트기 전에 살짝 빠져나갔지 뭐요? 새싹이 나고 곡식이 열리기 시작할 때, 물론 엉정귀도 함께 자라났소.

27 일꾼들이 농부에게 와서 말했소. ‘주인님, 주인님이 심은 씨는 다 우량종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 엉정귀가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28 농부가 대답했소. ‘음... 원수들이 한 짓이군... πππ’ 일꾼들이 물었소. ‘엉정귀를 뽑아버릴까요?’

29-30 농부가 말했소. ‘아니오. 만약 엉정귀를 뽑으면, 밀도 함께 뽑히고 말 걸세.

추수 때까지 둘 다 그냥 자라게 놔두시게.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지시하리다. 그때 엉정귀는 뽑아내 단으로 묶어 불쏘시개로 쓰고, 밀은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면 되니...’